

GLiMPSE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신효진	학번	201631019
휴대전화		이메일	hyojinshin@outlook.com

대학원명	KDIS/MPM	(국가) 프랑스
기 간	2017 년 8 월 – 2018 년 12 월	[귀국(예정)일: 2019 년 1 월]
첨부서류	GLiMPSE 귀국보고서 (600 자 이상; 10pt. 1 줄 간격)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에 유의하실 사항입니다.

- ※ 보고서의 목적은 차기 GLiMPSE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정보 공유임
- ※ 본 표지 이외에 2 페이지 내외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되도록 함

1. 제휴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ESSEC Business School은 파리 시내에서 RER 기차로 대략 40 분 거리에 있는 Ile de France 지역의 Cergy에 위치해 있습니다. RATP (프랑스 RER라인 운회사)가 파업을 해서 연결편이 끊기지 않는 이상 파리에 접근성은 좋은 편입니다. 파리 시내까지 기차요금이 거의 7 유로 (한화로 10,000 원) 이기 때문에 Navigo라는 정기 승차권을 충전해서 다니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Cergy는 RER선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라 파리 시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편입니다. 기후는 한국과 비슷하나 프랑스 동쪽 지방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온난한 기후이며 가을 – 초겨울 사이에 강수가 잦은 편입니다. Cergy Prefecture 역 주변에 큰 쇼핑몰이 있는데 이 안에 대형 슈퍼마켓 Auchan이 있고, ESSEC 학교와 제휴하고 있는 Societe Generale 은행 및 기타 편의 시설은 다 갖추고 있어 생활하는데 전반적으로 불편함은 없는 동네입니다.

2. 제휴 대학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ESSEC 학교 학생들은 주로 프랑스인, 중국인, 인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략 나머지 10%는 타 국가에서 온 학생이고 이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불어 혹은 영어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영어실력을 늘리고 싶은 프랑스 학생들이 영어수업로 된 수업들을 같이 듣기 때문에 불어로 진행되는

수업들 보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더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한 학기가 총 3 개월 혹은 10 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수업 당 주 1 회, 각 회당 3 시간 씩으로 짜져 있어 수업 진행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고 교수님들도 한 학기 중에 모든 수업내용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 저는 KDIS에서 받은 수업들이 좀 더 심도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업은 주로 강의 형식이며 출석률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수업을 80%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과목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대신에 보통 기말고사가 치루어 지며 과목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또는 보고서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수강신청은 ESSEC 학교에서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아주 순조로운 편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기 1-2 주일 전에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학생들은 미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강신청 기간 (1 주일이 주어집니다) 이후에는 수업을 Add 또는 Drop을 할 수가 없고 업이 이미 시작한 후에는 무조건 신청한 수업을 끝까지 들어야 하므로 수강신청 당시에 신중하게 선택해야합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제가 살았던 기숙사는 Le Port 라는 곳으로 학교에서 도보로 8-10 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까지 도보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처음 프랑스에 와서 집을 구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데 기숙사는 이런 점을 해결 해주니 초기 정착시 추천할 만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내에 정비공/가디언이 있어서 기숙사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쳐주시고 택배도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기숙사가 지어진지 얼마 안되고 학교에 접근성이 좋은 관계로 다른 두 기숙사들 (Le Haut 과 Linandes)에 비해 기숙사 비용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파리 시내에서 살면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RER이 파업을 자주 하는 관계로 아침 수업이 있거나 수업이 매일 있는 경우는 많은 시간을 기차역에서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별 발표가 있는 경우에는 늦게까지 학교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 사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학교에 카페 및 식당이 있는데 주로 바게트 샌드위치, 프랜치프라이, 구운 생선, 쿠스쿠스샐러드, 피자 등의 메뉴가 나옵니다. 가격은 주변 식당보다 저렴한 편이고 편리한 편이나 메뉴가 단조로운 편이라 학교 주변의 샌드위치 가게나 스시 레스토랑에서 사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은 주로 집에서 싸온 점심을 먹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저는 ESSEC에 다니는 기간이 짧은 관계로 학생클럽이나 학교에서의 다른 활동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ESSEC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인턴쉽 또는 일 경력이 필요한데 많은 학생들이 도중에 휴학을 하거나 수업을 모두 마치자마자 인턴쉽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6.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프랑스 대사관은 여름이 성수기라 비자 신청시 빨리 할 수록 좋습니다. 비자는 인터뷰 후 발급까지 2 주 안팎으로 걸리는 듯 하나 저의 경우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출입국도 여권만 보여주면 아주 간편했었고, 다만 프랑스에 도착해서 해야 할 행정처리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예를들어 저는 프랑스 도착 직후 은행계좌열기, 집보험가입, 출생증명서번역, 카프서류제출, 오피서류제출 등 수많은 행정업무를 해야 했는데 프랑스는 한국에 비해서 공공기관업무가 매우 느린편이니 빨리 작성하고 제출 할 수록 조금이나마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매우 짧은 기간이고 불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온 프랑스라 초반에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 1 년이 거의 다 된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GLIMPSE프로그램에 이렇게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ESSEC학교 측에서도 외국에서 온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학생들이 프랑스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라 저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오시기 전에 불어를 배워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는 복지 및 생활수준이 높은 나라라 살기는 정말 좋으나 불어를 못하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교학처장 귀하

2018 년 7 월 27 일

작 성 인 : 신효진 (인)